

2022. 4. 2. 국가직(가책형) 시험 총평

이유진 국어 알고리즘

한줄
총평

소통 능력 강화가 답! 독해 영역 70점 지배, 나머지 30점을 만드는 문제들은 난도 낮음

총평

▶ 출제 난이도와 경향

이번 국가직 9급 국어 시험은 작년 국가직 9급과 전체적 난도는 비슷했으나 문법 부분의 중요도가 더 낮아지고 실용적으로 쓰이는 혼동 어휘 부분의 출제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기출 출제 유형을 벗어난 융합 유형이 많아서 다양한 문풀 경험치를 쌓지 못한 수험생들은 낯선 유형이 많다고 느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독해는 배치와 배열을 통한 구조 독해 능력으로 변별력을 주었고, 화법도 3문제나 출제하였습니다. 화법 이론을 제재로 한 사례 추론 문항(8번)이나 언어의 변천 이론을 제재로 한 사례 추론 문항(10번)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문학 영역은 예상대로 고전 부분은 교과서 필수 작품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확실히 유리하도록 출제하였고, 현대 부분은 시험장에서 내용을 파악해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자와 성어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 출제 유형분석(가책형)



1	문법 규정	한글 맞춤법 - 혼동어휘	11	독해(비문학)	전개 방식 부정 발문
2	문법 규정	통사론 - 올바른 표현 + 혼동어휘	12	독해(화법)	지시 표현
3	어휘	성어	13	독해(비문학)	내용 확인 부정 발문
4	독해(화법)	말하기 방식	14	독해(문학)	현대 운문 내용 이해
5	독해(문학)	고전 산문 내용 이해	15	독해(비문학)	배열
6	독해(문학)	고전 운문 내용 이해	16	어휘	한자어
7	어휘	혼동 어휘	17	독해(비문학)	배치
8	독해(화법)	말하기 방식	18	독해(문학)	현대 산문 내용 이해
9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부정 발문	19	문법 규정	한글맞춤법 - 사이시옷
10	독해(비문학)	사례 추론(언어학)	20	독해(비문학)	내용 확인 긍정 발문

▶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 2번 > 문법 문제를 줄이면서 규정이나 어휘와 융합되는 양상
- 8번 > 화법 이론 지문을 소재로 내는 비문학 사례 추론 유형
- 10번 > 언어학 지문을 소재로 내는 비문학 사례 추론 유형
- 12번 > 문법의 담화론과 화법의 융합형

▶ 지방직 대비 전략

변별력을 주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독해의 체계적 훈련에 더욱 매진하셔서 난도 상승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 공무원 이 유 진 교수

2022 국가직 9급 국어 해설

現) 메가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박문각 공무원 국어 대표 교수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영어,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용익대학교 /

웅진세무대학 출강

기타)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저자

법률저널 PSAT 언어논리 칼럼 연재

KBS한국어능력시험 유형서 저자



이유진 우월한 국어



우월한 국어 이유진 카페

문 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아까운 능력을 썩히고 있다.
- ②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거름으로 만들었다.
- ③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혀 본 적이 없다.
- ④ 그들은 새로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

★ 정답: ③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혼동 어휘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를 의미하는 경우는 ‘썩히다’라고 쓴다. 따라서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혀 본 적이 없다.’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④ ‘물건이나 사람 또는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하다.’의 의미로 ‘썩히다’가 쓰인 것이다.

② ‘유기물이 부패 세균에 의하여 분해됨으로써 원래의 성질을 잃어 나쁜 냄새가 나고 형체가 무개지는 상태가 되게 하다.’의 의미로 ‘썩히다’가 쓰인 것이다.

문 2. (가) ~ (라)를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나)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어.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 ①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달라.
- ② (나):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③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 ④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 정답: ② -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표현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혼동 어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바람’이다. 표준어 규정 제11항의 해설에 따르면, ‘바람’을 ‘바램’으로 잘못 적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바람[風]’과의 혼동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이며, 동사가 ‘바라다’인 이상 그로부터 파생된 명사형을 ‘바램’으로 적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람’으로만 적는 것이 옳으며 이를 ‘바램’으로 잘못 고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좋은 결실’을 주어로 쓸 때는 ‘맺어졌으면’이라는 피동 표현을 쓰는 것이 옳고, ‘좋은 결실’을 목적어로 쓸 때는 ‘맺었으면’이라는 능동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피동문보다 능동문을 선호하지만 능동문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가)는 오빠의 생김새와 나의 생김새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므로, (가)에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이 아니하다’를 뜻하는 ‘다르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게 못하고 비뚤어지다.’의 뜻으로 (가)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가)의 서술어를 ‘다르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③ (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다)의 주어는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이므로 이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는 것이다’의 형태이다. 따라서 ‘것이야’의 준말인 ‘~거야’로 서술어를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④ (라)의 ‘주다’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라)에는 필수 부사어가 빠진 형태이므로 이를 ‘인간에게’와 같은 부사어를 넣어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문 3.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구곡간장(九曲肝腸)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 ② 학문의 정도를 견지 않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이가 있다.
- ③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口蜜腹劍)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④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자세가 필요하다.

★ 정답: ④ - 어휘 - 성어

제시된 문장에는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성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적절하지 않다. 제시된 문장에는 ‘깊이 잘 생각함’을 뜻하는 ‘심사숙고(深思熟考)’ 정도가 적절하다.

당랑거철(螳螂拒轍):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장자>의 <인간세편(人間世)>

篇>에 나오는 말이다. 느 당량당거철, 당량지부.

螳 사마귀 당, 螳 사마귀 량(량), 拒 막을 거 轍, 바퀴 자국 철
심사숙고(深思熟考): 깊이 잘 생각함.

深 깊을 심, 思 생각 사, 熟 익을 숙, 考 상고할 고

★ 오답 해설:

① 구곡간장(九曲肝腸):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 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九 아홉 구, 曲 굽을 곡, 肝 간 간, 腸 창자 장

② 곡학아세(曲學阿世):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曲 굽을 곡, 學 배울 학, 阿 언덕 아, 世 인간 세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口 입 구, 蜜 꿀 밀, 腹 배 복, 劍 칼 검

문 4.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수: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지민: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정수: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지민: 맞아. 그중에서도 두괄식으로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줄 몰랐어.

정수: 어!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지민: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정수: 그렇긴 해.

- ①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며 상대방의 이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화법) - 말하기 방식

‘지민’의 발화 중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라고 한 부분은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며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의를 격률을 사용했으며,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라고 한 부분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다.

★ 오답 해설:

① ‘지민’은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든 것이 아니라, 면접 전략 강의를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② ‘지민’과 상대방이 강의에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해 이견을 반박한 적은 없다.

④ ‘지민’은 강의에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대방과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을 표현한 적은 없다.

I 공손성의 원리

-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 관용의 격률: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 찬동의 격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라.
-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라.
- 동의를 격률: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라.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상이 말을 마치고도 전에 구름이 걸히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향로의 불을 이미 꺼져 있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완전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었으니,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입상하고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이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신 것이로다.’

— 김만중, 「구운몽」에서 —

- ① ‘양소유’는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 ② ‘양소유’는 인간 세상에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 ③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 ④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지문의 서두에서 ‘노승’과 ‘팔낭자’가 사라지고 당황하는 승상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승’으로 성진의 꿈에 나타난 육관 대사가 양 승상의 삶을 살고 있는 성진이 꿈에서 깰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 오답 해설:

① ‘성진’이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며 ‘양소유’로 살았던 꿈을 회상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였다’는 부분을 통해 ‘성진’은 인간 세상에 있지 않았으며, 인간 세상에서는 ‘양소유’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김만중, <구운몽>

•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소설이다. 육관 대사의 제자였던 주인공 '성진'이 세속을 탐한 죄로 인간 세상에 유배되어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고 공을 세워 승상의 자리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여덟 여인과 연을 맺어 아내로 삼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인생무상을 느끼고 불도에 귀의하기로 할 때에, 호승(胡僧)이 나타나 본래 '성진'이었음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하기로 한다. 이 작품은 한문 소설과 국문 소설 두 판본이 모두 전해져 오며, 이본이 다양하다. 그만큼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건너가 향유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주제: 인생무상

• 전체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연화봉에서 수행하던 승려 성진은 스승인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 용왕에게 사례하기 위한 길을 떠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용왕을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석교 위에서 팔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하기도 하는 등 계율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른다. 성진은 도를 닦던 자신의 선방으로 돌아와 속세의 부귀공명을 잠시 꿈꾸는데, 이 때문에 육관 대사에 의해 인간 세계로 쫓겨나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고, 팔선녀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하고 입신양명하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인간으로 태어난 여덟 여인과 차례로 인연을 맺어 2처 6첩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양소유는 불도에 귀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때 갑자기 나타난 호승에 의해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의 성진으로 되돌아온다. 성진은 급히 육관 대사에게 나아가 잘못을 빌고 팔선녀도 모두 불도에 귀의하게 된다. 성진은 육관 대사의 정법을 물려받고 팔선녀와 함께 큰 도를 얻게 된다.

문 6. (가) ~ (라)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간밤의 부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물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 무슨 흐리오.

(나) 철령 노른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 사마 켜여다가
㉡닐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본들 엇드리.

(다)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헌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라) 삼동(三冬)의 뽕뽕 님고 암혈(巖穴)의 눈비 마자
구름 낀 벗뉘도 켜 적이 엇간마는
서산의 ㉣헛 디다 흐니 그를 설워 흐노라.

- ① ㉠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 ② ㉡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 ③ ㉢은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 ④ ㉣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을 가리킨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던 화자가 임금(중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읊은 시조이다. ㉢은 이승을 떠난 임금을 뜻한다.

[제시 부분 현대어 풀이]

한겨울에 배로 만든 옷을 입고, 바위 굴에서 눈비를 맞으며
(벼슬한 적이 없이 산중에 은거한 몸이며)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빛도 켜 적이 없지만
(임금의 은혜를 입은 적도 없지만)
서산에 ㉢해가 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 (라) 작품 해설: 조식, <삼동에 뽕뽕 님고~>

• 해제: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유교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군신(君臣) 간의 의(義)를 노래한 작품이다. 벼슬을 하지 않고 산중에서 은거하는 몸이라 국록(國祿)을 먹거나 군은(君恩)을 입은 바 없지마는 임금(중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읊은 시조이다.

• 주제: 임금의 승하를 애도함

• 구성

• 초장: 벼슬하지 않고 은거함

• 중장: 임금의 은총을 입은 적이 없음

• 종장: 임금의 승하를 애도함

★ 오답 해설:

① 계유정난으로 인한 인제들의 죽음을 개탄한 작품으로, ㉠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들을 의미한다.

[제시 부분 현대어 풀이]

지난밤에 불던 바람이 매서운 눈보라와 차가운 서리를 몰아치게
했다 말인가?
㉡푸른 절개를 가진 충신들이 모두 쓰러져 가는구나!
하물며 아직 못다 핀 꽃들을 말해 무엇 하겠는가?

★ (가) 작품 해설: 유응부, <간밤의 부딘 바람에~>

• 해제: 수양 대군이 왕위 찬탈의 뜻을 품고 단종을 폐위시킨 사건을 풍자한 작품이다. 계유정난으로 인한 인제들의 죽음을 개탄하고 사직의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우국의 정이 잘 표현되었다.

• 주제: 우국의 정

• 구성

• 초장: 간밤에 있었던 세조의 포악

• 중장: 조정 충신들의 죽음에 대한 개탄

• 종장: 젊은 선비들의 미래를 염려함

② 임금님과 이별하고 유배를 가는 신하의 괴로움이 드러난 작품으로, ㉠은 임금님을 의미한다.

[제시 부분 현대어 풀이]

철령의 높은 봉우리에서 밤길이 내키지 않아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 저 구름아,
임금님의 신임을 얻지 못하여 귀양가는 이 외로운 신하의 억울한 눈물을 비로 삼아 띄워 가지고,
㉢임금님이 계신 깊은 대궐 안에 뿌려 나의 진심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구나.

★ (나) 작품 해설: 이항복, <철령 노른 봉에~>

•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함경도 북청으로 귀양 가는 도중에 철령 고개를 넘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읊은 시조이다. 임금과 이별한 뒤에 떠나가는 신하의 괴로운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 주제: 귀양길의 정한

• 구성

• 초장: 귀양길에 오른 외로운 심정

• 중장: 임금의 곁을 떠난 원통함

• 종장: 임금께 호소하고 싶은 심정

③ 지는 낙엽을 보며 입을 그리워하고 재회의 소망을 드러낸 작품으로, ㉣은 헤어진 연인을 의미한다.

[제시 부분 현대어 풀이]

배꽃이 흠날리던 때에 손 잡고 울며 불며 헤어진 임
가을바람에 낙엽 지는 것을 보며 ㉠임께서도 나를 생각하여 주실
까?
천 리 길 머나먼 곳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 (다) 작품 해설: 계량, <이화우(梨花雨) 훗날 제~>

- 해제: 배꽃이 비처럼 흠날릴 때의 이별의 정한, 낙엽 지는 가을날에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멀리 떨어져 있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염원 등을 여성의 섬세한 감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 주제: 임을 그리는 마음
- 구성
- 초장: 배꽃 떨어지는 봄날에 임과 이별함
- 중장: 낙엽 지는 가을에 임을 그리워함
- 종장: 임을 간절히 그리워함

문 7.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 했따.
-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 으로 나뉜다.
-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 할 수 없다.

- | ㉠ | ㉡ | ㉢ |
|------|----|----|
| ① 가름 | 부분 | 구별 |
| ② 가름 | 부분 | 구분 |
| ③ 같음 | 부분 | 구별 |
| ④ 같음 | 부분 | 구분 |

★ 정답: ① - 어휘 - 혼동 어휘

㉠의 제시된 문장은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의미이므로 ㉠에는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를 의미하는 '가름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의 제시된 문장은 올해 영화제 시상식이 11개의 부분으로 나뉜다는 의미이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은 낱말의 범위나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部門)'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의 제시된 문장은 형과 동생이 너무 닮아서 그 둘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를 의미하는 '구별(區別)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같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부분(部分):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

구분(區分)하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

문 8. 다음 글의 '동기화 단계 조직'에 따라 (가) ~ (마)를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득하는 말하기의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동기화 단계 조직'이 있다. 이 방법의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 2단계: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 3단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 4단계: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
- 5단계: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가)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나)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한다고 합니다.

(라) 만약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② (가) - (다) - (나) - (라) - (마)
- ③ (가) - (다) - (라) - (나) - (마)
- ④ (가) - (라) - (다) - (나) - (마)

★ 정답: ② - 독해(화법) - 말하기 방식

1단계: (가) 지난주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로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하기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2단계: (다)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와 같이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3단계: (나)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단계: (라)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할 경우 신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헬멧 착용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하고 있다.

5단계: (마)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기화 단계 조직에 따른 적절한 배열은 ② (가)-(다)-(나)-(라)-(마)이다.

문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와 ○○시로부터 받은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 공감 지도는 공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에 소재한 복지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생필품 지원이나 방문 상담 등 복지 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 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그동안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서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복지 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 ③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서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 ④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둘째 문단의 ‘이 지도를 활용하면 ~ 최적의 복지 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를 통해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진 것을 알 수 있지만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통해 복지 기관 접근성을 분석하고 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셋째 문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셋째 문단의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하여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였고, 이에 복지 서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곧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이 복지 서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 10. ㉠ ~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첫째, “아침 먹고 또 공부하자.”에서 ‘아침’은 본래의 의미인 ‘하루 중의 이른 시간’을 가리키지 않고 ‘아침에 먹는 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되어서 ‘아침’만으로도 ‘아침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 ‘바가지’는 원래 박의 껍데기를 반으로 갈라 쪼갠 물건을 가리켰는데, 오늘날에는 흔히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다. 셋째, ‘묘수’는 본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 꺼려서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고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 ① ㉠: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
- ② ㉡: ‘수세미’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 ③ ㉢: ‘배꼽’은 일반적으로 ‘뱃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 ④ ㉣: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불렀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사례 추론

㉣은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배꼽’의 예시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쓰이던 단어의 의미가 특수한 영역에서 쓰이면서 변화한 경우이다. 따라서 적절한 예시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이다.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의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을 의미하는 ‘코’가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를 의미하는 ‘콧물’의 의미까지 포함한 경우이므로 적절한 예시이다.
- ② ㉡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이 바뀌어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이다. ‘수세미’는 과거에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을 만드는 재료였으나 오늘날에는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했다. 따라서 ㉡의 예시로 적절하다.
- ④ ㉣은 특정 표현을 피하려고 대체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이다. 과거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천연두’를 존대의 의미를 가진 ‘손님’이라고 불렀다. 이후 ‘손님’의 뜻에는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생겼으므로 ㉣의 예시로 적절하다.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빛 공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 농장의 수확물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① 시장에게 빛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②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③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④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부정 발문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 이에 대해 자료를 인용하거나 그 자료의 출처를 밝힌 적은 없다.

★ 오답 해설:

- ①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한 후 수확물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언급하며 빛 공해로 인하여 겪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에 따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③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분에서 다른 지역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④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라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등의 보완책’과 같은 해결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문 12. 다음 대화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진: 태민아, ㉠ 이 책 읽어 봤니?
태민: 아니, ㉡ 그 책은 아직 읽어 보지 못했어.
이진: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 볼 만해.
태민: 응, 꼭 읽어 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이진: 그럼 ㉢ 저 책은 어때?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이야.
태민: 그래, ㉣ 그 책도 함께 읽어 볼게.
이진: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 읽어 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 이 책 두 권 사 줄게.
태민: 고마워. 잘 읽을게.

- ① ㉠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②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 ④ ㉤은 ㉢과 ㉣ 모두를 가리킨다.

★ 정답: ② - 독해(화법) - 지시 표현

㉢ ‘저 책’의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이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 ‘이 책’의 ‘이’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이고 ㉡ ‘그 책’의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이다. 따라서 ㉠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③ ㉢ ‘저 책’과 ㉣ ‘그 책’은 모두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을 뜻한다. 따라서 ㉣과 ㉤이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이진’이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고 하였으므로 ㉤ ‘이 책’은 ㉢ ‘그 책’과 ㉣ ‘저 책’ 모두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1922년 쟁 여사는 아동권리사상을 담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1924년 국제연맹에서는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헌장」 9개 항을 만들었다.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 ② 「아동권리헌장」은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 ③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헌장」에는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 ④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셋째 문단의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를 통해,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문단에서 최근에 와서야 아동이 능동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근대사회에 이르러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넷째 문단에서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③ 둘째 문단에 따르면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넷째

문단에 따르면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14.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 신동엽, 「봄은」 -

- ①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 ②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봄’과 ‘겨울’의 이원적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이 작품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현실을 ‘겨울’,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세력을 ‘바다와 대륙 밖’,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이라는 상징적 시어들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통일을 상징하는 ‘봄’이 오려면 외부 세력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현실 참여적인 성격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② 지문은 ‘오지 않는다, 움튼다, 움트리라, 녹여 버리겠지’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통해 부정적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봄(통일)’이 온다는 화자의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남해, 북녘, 바다, 대륙’과 같은 외세를 의미하는 시어와 ‘제주에서 두만, 아름다운 논밭, 삼천리 마을, 강산’과 같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의미하는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지문은 분단 현실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봄(통일)’과 ‘겨울(분단 현실)’의 이원적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작품 해설: 신동엽, <봄>

- 해제: 이 시는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의 염원을 노래한 작품이다. 분단의 현실을 '겨울'로 통일의 시대를 '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통일은 그 어떠한 외부 세력도 아닌, 바로 우리 민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의지와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 주제: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주제적 의지 및 염원
- 구성
 - 1연: 통일의 주제 제시
 - 2연: 자주적 통일의 기반
 - 3연: 분단의 원인과 해결책
 - 4연: 통일된 조국의 미래

문 1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련하면 그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후해지면 그 작동도 막혀 버릴 것이니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회를 고취하여 발달케 하리오.
- (나)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 (다)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추 수 있으리오.
- (라)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필경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사회가 어찌 유지될 수 있으리오. 반드시 폐망을 면하지 못할지라.
- (마)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발문」에서 —

- ① (마) - (가) - (다) - (나) - (라)
 ② (마) - (가) - (라) - (다) - (나)
 ③ (마) - (다) - (가) - (라) - (나)
 ④ (마) - (다) - (나) - (가) - (라)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배열

- (가) '이 기관'을 잘 다스려 사회를 발달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 (나)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에는 '말과 글'의 중요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말과 글'은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하였으므로 (가)보다 앞에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다) '말과 글'이 사회 구성의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 (라) '그뿐 아니라'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그 기관'이 쓸 수 없어져 사회가 폐망하게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을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후해지는 경우를 제시한 (가) 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 (마) '사회'는 여러 사람의 '뜻'이 통해야 한다는 의사소통의 당위성을 화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의 서두에 오기에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마)-(다)-(나)-(가)-(라)이다.

문 16.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 협상에서 만족(滿足)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② 김 위원의 주장을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하여 재청(再請)했다.
 ③ 우리 지자체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解結)할 방안이 생겼다.
 ④ 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재론(再論)이 필요하다.

★ 정답: ③ - 어휘 - 한자어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얹힌 일을 잘 처리함.'을 뜻하는 '해결'은 '解決'이라고 쓰는 것이 옳다.

해결(解決):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얹힌 일을 잘 처리함.

解 풀 해, 決 결단할 결

結 맺을 결

★ 오답 해설:

① 만족(滿足): 마음에 흡족함.

滿 찰 만, 足 발 족

② 재청(再請): 회의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동의(動議)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청함을 이르는 말.

再 두 재, 請 청할 청

④ 재론(再論): 이미 논의한 것을 다시 논의함.

再 두 재, 論 논할 론(논)

문 17.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 ~ ㉣에서 고르면?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나,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였다. ㉠ 그 이후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다. ㉡ 이러한 상황은 대략 1770년대에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경하는 전통 시학을 거부했다. ㉣ 고전 문학은 더 이상 문학의 규범이 아니었으며, 문학을 현실의 모방으로 인식하는 태도도 포기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배치

제시된 문장의 '~던 것이다'를 통해, 이 문장이 '신분에 따른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정리하여 진술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낭만주의 시기의 신흥 시민계급 문학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경하는 전통 시학'이 바로 신분에 따른 문체의 고착화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재진술한 문장은 ㉣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어 터부룩한 테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러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식지식*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식지식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현은 박의 그런 지식지식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을 놓고, 그들은 우선 대합실로 들어왔다. 할 말은 많은 듯하면서도 지껄여 보고 싶은 말은 골라낼 수가 없었다. 이내 다시 일어나 현은,

“나 좀 혼자 걸어 보구 싶네.”

하였다.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 가지고 대동강가에 있는 동일관이란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고 현만이 모란봉으로 온 것이다.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그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귀*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요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사에게 물어보니, 경찰서라고 했다.

- 이태준, 「패강행」에서 -

- ※ 지식지식: 남이 싫어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짓궂게 자주 요구하는 모양.
- ※ 뿌다귀: '뿌다구니'의 준말로, 쑥 내밀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 ①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②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 자신을 연민하고 있다.
- ③ '현'은 새 빌딩들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 ④ '현'은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버릇처럼 자주 찡그러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에서 '현'이 '박'을 보고 예전과 달라진 면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이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해설:

- ② '박'의 그런 지식지식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을 통해, '현'이 '박'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박'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가 자신을 연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는 것을 통해, '현'이 새 빌딩들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귀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요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 '현'이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이태준, <패강행>

- 해제: 이 작품은 조선이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전락하고, 조선어에 대한 교육과 조선어를 통한 저작 활동마저 위축되어 가던 일제 강점기 말의 암울한 현실과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소설이다. 이태준은 실속을 차리기 위한 방향 전환을 강조하는 부회 의원 '김'처럼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는 이들과, 조선어 교육 위축으로 설 자리를 잃어 가는 교사 '박', 민족의 현실을 비애에 젖어 바라보는 작가 '현' 같은 이들을 대비하여 당시의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이런 말과 이런 글자로 글을 쓰는 우리의 어두워지는 심사를 어설프게나마 나타내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이태준은 분노를 잃고 패배가 되어 버린 평양의 풍경과, 작중 인물 '현'이 읊조리는 '이상견빙지'라는 말을 통해, 조선 전체가 처한 위기 상황을 암시하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주제: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과 그로 인한 지식인의 비애
- 전체 줄거리: 자신의 친구이자 고등 보통학교 조선어 교사인 '박'으로부터 조선어 시간 축소 정책으로 인해 학교에서 설 자리를 잃어 간다는 편지를 받고 심어 년 만에 평양에 오게 된 작가 '현'은 슬퍼 보이는 자연 풍경을 보며 쓸쓸함을 느낀다. '현'은 몰라보게 달라진 평양 시가지 모습과, 아름다워 보이던 풍속인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사라진 현실을 보며 서글픔을 느낀다. 그는 동일관에서 친구 '박'과 또 다른 친구 '김'을 만나고 오래 전에 인연이 있던 기생 '영월'도 만나게 된다. 실업가인 '김'은 여인들의 머릿수건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기도 한 부회의 의원으로 있는 친구이다. '현'과 '김'은 평양 여인들의 머릿수건에 대해 언쟁을 벌이고, '박'은 '영월'의 노래를 눈물을 글썽이며 이어받아 부른다. '김'은 기생들과 서양 댄스를 추고 '현'은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실속을 차리라는 '김'의 충고에 '현'은 컵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며 싸움을 말리는 '박'에게 '현'은 '김'이 미워서 그렇게 화를 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차고 고요한 대동강의 밤 강물을 바라보던 '현'은 '이상견빙지'라는 말을 되뇌면서 슬픔에 젖는다.

문 19.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① (가)에 따라 '아래 + 집'은 '아랫집'으로 적는다.
- ② (가)에 따라 '쇠 + 조각'은 '쇠조각'으로 적는다.
- ③ (나)에 따라 '전세 + 방'은 '전셋방'으로 적는다.
- ④ (나)에 따라 '자리 + 세'는 '자릿세'로 적는다.

★ 정답: ③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사이시옷

'전세+방'은 한자어 '전세(傳貰)'와 한자어 '방(房)'으로 된 합성어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셋방'으로 적는 것이 옳다.

★ 오답 해설:

- ① '아래+집'은 순우리말 '아래'와 '집'이 결합된 합성어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 [아래집/아랫집]으로 발음하므로 '아랫집'으로 적는다.
- ② '쇠+조각'은 순우리말 '쇠'와 '조각'이 결합된 합성어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 [쇠조각/쇠조각/세조각/췌조각]으로 발음하므로 '쇠조각'으로 적는다.
- ③ '자리+세'는 순우리말 '자리'와 한자어 '세(賈)'가 결합된 합성어이

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 [자리제/자릴제]로 발음하므로 '자리제'로 적는다.

★ 사이시옷의 관련 조항 -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ㄷ'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ㄷ'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

문 20.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는 '밈(meme)'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 복제되어 개체군 내에서 확산되듯이,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일례로, 요크셔 지역에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리법은 누군가가 푸딩 만드는 것을 지켜본 후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기보다는 요크셔 푸딩 요리법에 대한 부모와 친척,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한 결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니는 동시에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 준 정보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다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 ①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는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 ③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 ④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 발문

셋째 문단에서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요크셔 지역의 푸딩 요리법을 예로 들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요리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준 정보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문화 수용 과정에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글쓴이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③ 복제를 통해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은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밈 이론'이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둘째 문단에 따르면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이 곧 '밈 이론'이므로 요리법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밈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